

프랑코 모레티의 세계문학론 비판*

- 매체론의 관점에서 -

이 재 연
(울산 과기원)

◆ 국문초록

영문학자 프랑코 모레티(Franco Moretti)의 연구는 문학의 여러 방면에서 두드러진다. 교양소설 혹은 성장소설에 관한 독특한 해석, 세계문학을 보는 새로운 시각,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문학사를 다시 읽는 방법, 또한 그러한 거시적인 방법을 통해 던지는 사회비평 등등, 폭 넓은 시야와 심도 있는 분석으로 다방면에 족적을 남겼다. 본 논문은 모레티의 세계문학론을, 그가 제안한 '멀리서 읽기'(distant reading)라는 거시적 방법론과 그 사례들을 살피며 타진해 보고자 한다. 그의 방법론은 문학사에서 잊힌 비정전을 포함하여 거시적인 아카이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현상을 하나의 계열로 묶어, 그 패턴의 형태적 의미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그래프, 지도, 나무』(*Graphs, Maps, Trees*)라는 책이다. 이에 본 논문은 그 책에 초점을 맞추어 그가 제시한 형태론적 세계문학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비판의 시각은 매체론, 특히 한국문학의 매체론적 관점이다. 신문과 잡지와 같은 매체에 대한 관심은 괴테가 세계문학론을 제창했을 때부터 있었고, 특히 미국의 영문학에서는 최근 정기간행물 연구(periodical studies)라는 영역이 새롭게 개척되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또한 한국문학에서는 서구 문예 수입, 장르의 형성, 문학의 사상화(思想化), 출판시장의 분화, 작가 등단 제도 등 근대문학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392729).

바쁘신 와중에 본고를 읽고 논평해 주신 부산대 김용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17년 6월20일 지구적 세계문학 세미나에서 질문 주신 원광대 김재용 선생님, 카이스트 이상경 선생님, 광운대 고명철 선생님, 광운대 박형덕 선생님, 동아대 손석주 선생님, 강원대 김창호 선생님들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꼼꼼히 읽고 논평 주신 심사자 세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형성에 있어서 신문과 잡지와 같은 정기간행물, 혹은 매체의 역할은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모레티의 세계문학론과 세계문학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멀리서 읽기'를, 매체론의 한 사례인 한국 근대문학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가 간과하고 있는 측면(문학지식의 계열화에 수반되는 물적 토대)에 근거하여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려 한다.

주제어 : 프랑코 모레티, 세계문학론, 멀리서 읽기, 한국 근대문학, 매체론

1. 들어가며

영문학자인 프랑코 모레티가 밝은 문학연구의 학문의 궤적은 흥미롭다. 이태리 로마 태생인 그는 트로츠키주의에 골몰, 영국의 신좌파 그룹과 함께 맑스주의의 쇄신을 고민하였고,¹⁾ 한편 교양소설 혹은 성장소설(*bildungsroman*)로 불리는 장르에 관한 독특한 통찰력을 보여주기도 하였다.²⁾ 이후 미국으로 자리를 옮겨 세계문학에 관한 새로운 담론을 만들더니,³⁾ 통계학, 사회학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분석, 지리학, 진화이론 등을 포함하는 정량분석을 문학에 적용하여, 소위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한 선두주자 중 한 명이 되었다.⁴⁾ 또한 그는 자신의 정량분석 방식을 몇 백 년 사이의 영미문학 역사에 적용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부르주아에 관한 사회비평을 개진하기도 하였다.⁵⁾ 본 논문은 모레티가 밝은 학문의 변곡점들을 성글게나마

1) Ruben Marc Hackler and Guido Kirsten, "Distant Reading, Computational Criticism, and Social Critique: an Interview with Franco Moretti," 2016, pp.3-4.

<http://www.fsw.uzh.ch/foucaultblog/featured/144/distant-reading-interview-with-franco-moretti> (검색일: 2017.08. 07.).

2) Franco Moretti, *Il romanzo di formazione*, Milan: Garzanti, 1986. Translated by Albert Sbragia as *The Way of the World: The Bildungsroman in European Culture*, London: Verso, 1987.

3) Franco Moretti, "Conjectures on World Literature," *New Left Review* 1, 2000, pp.54-68; Franco Moretti, "More Conjectures," *New Left Review* 20, 2003, pp.73-81.

4) Franco Moretti, *Graphs, Maps, Trees*, London: Verso, 2005; Franco Moretti, *Distant Reading*, London: Verso, 2013.

5) Franco Moretti, *The Bourgeois: Between History and Literature*, London: Verso,

짚어가며 한국문학의 입장에서 그 성과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그 초점은, 텍스트를 넘어서는 형식, 즉 그가 형태론(morphology)이라고 부른 문학연구에 있어서의 새로운 형식과 이를 통해 본 세계문학론이다. 이러한 세계문학론을 한국문학에서 바라볼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잡지와 신문을 포함하는 매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보통 문학에서의 형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작품 자체의 양식적 특성에 관한 것, 다른 하나는 출판이나 인쇄와 같은, 텍스트를 작품으로 출판하기까지의 물질적 특성까지 고려하여 유형화한 것이다. 전자의 예로, 스타일과 같이, 작가나 작품의 개성을 잘 드러내기 위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반복 사용된 형식이나, 시, 소설, 수필 혹은, 서정, 서사 등 일정한 갈래의 텍스트를 유형화하기 위해 지칭한 장르를 들 수 있다.⁶⁾ 후자의 예는, 매켄지(D. F. McKenzie)가 “텍스트의 사회학”이라고 부른, 활자의 모양, 오식, 텍스트의 판본, 텍스트를 묶은 형태(신문, 잡지의 매체나 어떠한 주제의 선집 등) 등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텍스트 구성의 물질적인 요소들을 고려한 형식을 찾아볼 수 있다.⁷⁾ 후자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텍스트 해석과 비평의 관점은 작품의 정본을 찾아 해석하는 전통적 의미의 문학연구에서, 매체론이나 책의 역사와 같은, 텍스트 생산과 소비의 과정을 아우르는 문화론적 관점으로 연구의 시야가 확장된다.⁸⁾

모레티는 여기서 더 나아가, 몇 백 년 단위의 시간과 “행성”(planetary) 단위로⁹⁾ 확장시킨 공간 위에 있는 초거시적 범주의 세계문학을, 형식적 입장에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가 “멀리서 읽기”(distant reading)라고 명명한 이 방법론은, 문학사에서 잊힌 대다수의 작품들을 포괄하여 새로운 문학사를 쓰기 위해, 일부러 전통적 연구의 대상인 정전에서 떨어져

2013.

6) M.H. Abrams,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7th Edition, New York: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1999, pp.108-110; 303-305.

7) D.F. McKenzie, *Bibliography and the Sociology of Texts*, Cambridge, UK: Cambridge UP, 1999, pp.9-30.

8) Jerome McGann, *The Textual Condition*, Princeton: Princeton UP, 1991.

9) Moretti, “Conjectures on World Literature,” p.54.

읽는 방법을 일컫는다. 세계문학이라는, 전례 없이 확장된 시공간의 문학을 분석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일차자료뿐 아니라 다른 학자들의 연구서를 통해 얻은 문헌사관련 정보들을 수집하고 추상화하여 새로운 맥락에서 이해하는 방식을 수반한다.¹⁰⁾ 그는 최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새로운 맥락화가 아날학파의 계열사(serial history)에서 온 것임을 밝혔다.

“그 표현[‘멀리서 읽기’]은 ‘세계문학에 관한 견해’(Conjectures on World Literature)라는 제 논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말은 마지막에 추가한 것인데요, 원래는 ‘계열 읽기’(serial reading) 이라고 불렀었던 것입니다. 이 용어로 다시 아날 학파를 언급하게 되는군요. 그들은, 제3수준의 계열사(系列史)[인간의 마음과 감정을 포괄하는 심성사]에 관해 이야기했지요. 그것이 저의 참조틀이었습니다. (...) 그 뒤에 ‘멀리서 읽기’라는 용어가 생각났고, ‘계열 읽기’라는 말을 지우기로 마음먹었지요.”¹¹⁾

아날학파는 루시앵 페브르(Lucien Febvre, 1878-1956)와 마르크 블로흐(Marc Bloch, 1886-1944) 등이 『사회경제사 연보』(*Annales d'histoire économique et sociale*, 1929-현재)라는 학술지를 만들면서 시작한 새로운 역사학파다. 그들은 정치적 위인들이 성취한 개인적 업적을 이야기체로 서술해왔던 당시의 역사기술방법에서 탈피하여 연구의 대상을 사회경제 현상으로 설정하고 집단들 사이에서 야기된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다.¹²⁾ 이후,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 1902-1985)과 같은 2세대 아날학파는 사회경제사나 지리사학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역사방법의 지평 위에, 지중해 해역 전체라는 넓은 지역에서 발생한 몇 백 년간의 ‘장기지속’(longue durée) 안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역사의 시공간을 초거시적으로 확장시켰다.¹³⁾ 아날학파 1, 2세대를 묶은 전제가 거시적 시공간에 대한 총체적 역사(a total history)의 파악 가능성이었다면,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와 같은 3세대 아날학파는 이를 부정하고 역사의 불연속성을 강조한다.¹⁴⁾ 제

10) *Ibid.*, p.58.

11) Hackler and Kirsten, *op. cit.*, p.6.

12) 프랑수아 도스, 『조각난 역사』, 김복래 역, 푸른역사, 21-42쪽.

13) 김용중, 『아날학파의 역사세계』, 아르케, 159-180쪽.

각기 자기 리듬과 의미 있는 단절이 있는 역사의 불연속을 이해하기 위해, 푸코는 역사가들에게 새롭게 탈중심적 계열을 구성하여 그 층위의 의미를 기술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를 “지식의 고고학”이라고 불렀다.¹⁵⁾

이러한 푸코의 계열사에 영향을 받은 모레티의 ‘멀리서 읽기’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 층위에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텍스트와의 인위적 거리를 통해, 텍스트보다 작거나(코퍼스, 단어, 구절, 문장 등) 텍스트보다 큰(장르, 스타일 등)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변화의 패턴을 읽어내는 작업.¹⁶⁾ 둘째, 기존연구자들의 이차자료를 포괄하여 연구대상을 텍스트에서 아카이브로 확대하고, 그 안에서 맥락을 달리하는 아카이브를 재구성하고 계열화하여 기존의 역사에서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의미를 보여주는 작업이 그것이다. 자신이 구성한 문학 아카이브 속 계열을, 단순히 역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를 추상화시켜 형태적 입장에서 파악한다는 점에서 그의 읽기론은 계열사의 아류로 치부할 수 없는 신선한 맛이 있다.¹⁷⁾

따라서 본 논문은, 모레티가 ‘멀리서 읽기’라는 그의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인 『그래프, 지도, 나무』(*Graphs, Maps, Trees*)라는 저서를 중심으로 모레티의 형태론적 세계문학을 이해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문학의 입장에서 그의 세계문학론과 세계문학 연구를 위한 방법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특히 매체론과 책의 역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¹⁸⁾ 예로부터는 백철부터 시작하여 최근으로는 김영민, 한기형, 천정환,

14) Michel Foucault, *The Archeology of Knowledge & The Discourse on Language*, New York: Harper Colophon Books, 1976, pp.8-10.

15) 프랑수아 도스, 위의 책, 258쪽.

16) Moretti, “Conjectures on World Literature,” p.57.

17) 심사자 한 분은, 모레티의 ‘멀리서 읽기’가 기존의 구조주의나 포스트 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등의 이론과 어떻게 다른지를 물어보셨다. 모레티의 방법론은, 새롭게 집적된 문학 정보의 아카이브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주목한다는 점에서 구조주의와 비슷하지만, 그 패턴의 형식이 텍스트의 안과 밖에서 의미하는 바를 찾는 점에서 형식주의의 전통과 연결되기도 한다. 모레티 이론의 차별성은 좀더 정직한 공부를 통해 다른 논문에서 다루어져야 할 듯싶다. 본 논문에서는, 모레티의 멀리서 읽기의 기반이 되는 문학 정보 집적 과정과 그 역사성을, 책의 역사나 매체론의 입장에서 다뤄보도록 하겠다.

18) 모레티의 멀리서 읽기를 적용하여 국가단위의 문학연구나 비교문학에 적용한 성과들이 최근 등장하여 그의 방법론적 공과를 테스트하기 시작하였다. Hoyt

박헌호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의 근대문학 형성에 있어서 신문과 잡지와 같은 매체의 역할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학저널리즘의 현상을 한국이나 동아시아 문학의 성격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성급한 감이 있다. 본문에서 좀 더 다루겠지만, 1820년대에 세계문학의 도래를 예지한 괴테가 이미 신문과 잡지의 중요성을 알고, 영국과 프랑스의 문예잡지를 구독하며 작품과 비평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 세계문학을 한국 매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첫 부분에서는 모레티의 형태론적 세계문학의 사례들을 파악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의 문학론이 매체에 관한 이해를 간과하고 있음을 괴테의 세계문학론 제안 배경을 통해 비판하며, 마지막으로 영미문학에서 새롭게 제기된 정기간행물 연구(periodical studies)를 간략히 요약한 뒤 이를 참조하여, 한국문학의 입장에서 세계문학론에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그래프, 지도,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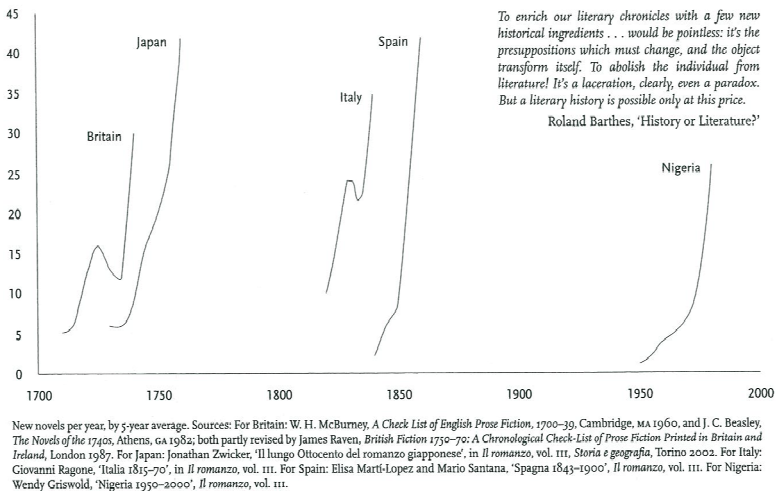
앞서 모레티가 ‘멀리서 읽기’를 적용하면서, 문학사의 모형을 만들기 위한 추상화를 의도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그러한 의도적 추상화의 형태를 ‘그래프, 지도, 나무’라는 모형을 통해서 드러내었는데, 동명의 저서에서 그는 “그래프는 계량적 역사학, 지도는 지리학, 나무는 진화론”에서 나온 모형을 밝혔다.¹⁹⁾ 모레티는 왜 이러한 모형을 만들었을까? 후술하겠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문학연구의 독법을 유형학에서 탈피시키자고 주장한다. 그에게 유형학은, 몇 권의 정전을 읽으면서 그 작품들이 장르전체의 성격을 대변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사고를 말한다. 코넬 독일의 작품을 추리소설의

Long and Richard So, “Network Analysis and the Sociology of Modernism,” *Boundary 2: An International Journal of Literature and Culture* 40.2, 2013, pp. 147-182. Matt Erlin and Lynne Tatlock eds., *Distant Readings: Topologies of German Culture in the Long Nineteenth Century*, New York: Camden House, 2014.

19) Franco Moretti, *Graphs, Maps, Trees*, p.4.

대표로 읽는 태도와 같은 것 말이다. 나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독법은 정전 이외의 다른 작품에 대한 관심을 지워버리는 부작용을 수반한다. 이 유형적 읽기로 인해 “문학사의 10분의 9가 지워졌다. 너무 많다”고 그는 말한다.²⁰⁾ 그리고 지워진 10분의 9를 포괄하는 문학사를 다시 서술할 것을 제안한다. 많은 수로 말미암아 이 작업은 필연적으로 추상화될 수밖에 없으니 형태적 모형을 사용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자는 것이다.

이 책의 첫 장인 “그래프”에서 모레티는 여러 통계적 지표를 활용, 그의 시야에 포착된 세계문학을 문학사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그 중에서 제일 빛을 발하는 분야는 장르론이다. 그 설명의 첫 시작은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소설의 발흥”이라는 라는 그래프이다.²¹⁾



[그림 1]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소설의 발흥

여기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연도별 신간소설 발간횟수가 있다. 시기는 1700년대부터 1990년대 말까지, 나라는 영국, 일본, 이태리, 스페인, 나이지

20) *Ibid.*, p.30.

21) *Ibid.*, p.6.

리아의 사례를 포괄한다. 이 그림은 각국의 소설이 시차를 두고 발전함을 보여준다. 그래프의 맨 왼 쪽 1700년대 전반기는 영국이, 맨 오른쪽에는 1900년대 중후반에서는 나이지리아가 눈에 띈다. 이러한 소설 발흥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그래프는 오른쪽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승곡선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1750년대만 되어도, 일본의 연도별 소설 생산량이 영국의 그것을 상회한다는 것이다. 각국의 소설의 생산량이 공통적으로 급격한 우상향 커브를 보이는 점, 그리고 그것이 한 때 영국의 생산량을 능가했었다는 점은, 근대문물로서의 소설, 즉 유럽에서 시작하여 제3세계에 영향을 준 소설이라는 장르가, 유럽의 전유물이 아니고, 나름의 역사를 통해 각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시사한다. 장르에 관한 비서구적, 탈중심적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은 우리가 왜 연구의 시야를 전 지구적으로 확대하고 시간 축을 몇 백 년 단위로 이상으로 놓고 연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이후 그는 영국문학에 초점을 맞추어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전반에 유행했던 장르를 파악한다. 그 장르는 서간체소설, 고딕소설, 역사소설로, 서간체소설은 1760년대에서 1800년대 사이에, 1780년 1820년, 1810-20년에서 1850년 전후로 뒤집은 U 형태의 발흥과 소멸의 모습을 보여준다.²²⁾ 한 장르의 발흥이 끝난 뒤에 다른 장르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한 장르의 소멸의 시기와 다른 장르의 발흥이 겹치는, 그러한 뒤집어진 컵 모양의 그래프이다. 장르의 발흥과 소멸 원인이나 그 순서는 당시의 정치, 사회, 문학의 여러 개별적 요인들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터이다. 어쩌면 피상적일 수 있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차치하고 모레티는 여기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왜 세 장르들의 성과 쇠가 30년 정도의 주기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성과 쇠는 개별적 사건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큰 패턴의 한 부분인가.²³⁾ 첫 질문에 대한 모레티의 추론은 독자의 소멸이다. 장르의 성쇠와 장르별 출판시장의 점유율을 분석한 그는, 그 두 측면은 연동되어 있으며, 하나의 장르를 좋아하던 독자들이 대개 30년 전후의 시간으로 교체됨을 파악하였다. 그는 100여 건의 연구를 들춰보고, 1740년부터 1900년대 사이 영국문학에서 명

22) *Ibid.*, p.15.

23) *Ibid.*, p.13.

멸한 장르를 될 수 있는 대로 수집하여 그 수명을 조사한다. 44개의 장르가 160년 동안 등장하고 소멸한 시점을 표현한 아래의 막대그래프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이 모든 장르들이 25년에서 3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명멸했음을 보여준다.

이 그래프는 개별 장르들의 발생과 소멸이 거대한 흐름의 한 주기임을 시사한다. 이를 보며 모레티는 여기에 “소설 ‘장르’라는 것이 어디 있는가” 하고 질문한다.²⁴⁾ 보통 우리는 문예소설이라는 소설 장르의 상을 가지고 있고, 그에 부합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소설인 추리소설, 공상과학소설 등등을 ‘장르소설’로 구분하여 문예소설의 밑으로 배치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의 장르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살아남은 걸작들만을 읽고 나머지는 버린다. 잘 된 하나가 다수를 대표한다는 유형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셜록 홈즈』 소설을 동시대 추리소설의 대표로 소비하면서 나머지를 버린다. 코넬 도일이 『셜록 홈즈』 시리즈를 쓸 당시에 맥더넬 보드킨(M. McDonnell Bodkin)이 『그가 도망친 방법』(*How He Cut His Stick*)을 썼고, 클리포드 애쉬다운(Clifford Ashdown)이 『아시리아산 회춘제』(*The Assyrian Rejuvenator*)를 출간한 사실을 기억하는 독자는 많지 않다. 그러나 장르를 주기로 이해하면, 정전도 중요하지만 동시대 비정전도 중요함을 알게 된다. 모레티에 따르면, 소설은 각각의 개별 장르, 혹은 “소설적 (하위)” 장르와 소설이라는 이분법적 구조의 장르가 아니라, 소설은 “공시적으로 또한 통시적으로 소설적 장르들의 체계,” 즉 “전체적인 다이어그램이지 어떤 특별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²⁵⁾ 그의 그래프는 아날학파의 역사적 주기론이 문학사적으로 구현 가능함과 동시에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음을 예증하고 있다.

24) *Ibid.*, p.30.

25) *Ibid.*, p.30.



For sources, see 'A Note on the Taxonomy of the Forms', page 31.

[그림 2] 영국의 소설 장르, 1740-1900²⁶⁾

26) *Ibid.*, p.19.

모레티는 그가 언급한 ‘멀리서 읽기’의 두 번째 모형으로 지도를 사례로 들며, 지리학이나 기하학의 입장에서 문학 작품의 해석을 도모한다. 모레티의 책에서 이 장은, ‘멀리서 읽기’가 단순히 문학의 역사적 영역에서만뿐만 아니라 문학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해석의 영역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지도는 해석적 효용성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래프, 지도, 나무』 출간 전에 나온 『유럽소설의 지도』(*Atlas of the European Novel, 1800-1900*)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소설의 이야기 형식이 장소에 귀속되어 있음(place-bound)을 전제하며 지도가, 문학의 형식이 내포하는 “각각의 독특한 기하학, 경계, 공간적 금기와 자주 반복하는 일상,” 즉 이야기 구성의 내적 논리를 보여줄 수 있다고 보았다.²⁷⁾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모레티는 앞서 언급한 44개의 영국 소설의 장르 중 하나인 ‘춘락서사’에 초점을 맞춰 지도를 사용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춘락서사는 1800년부터 1825년 동안 유행했던 영국의 대중적인 장르이다. 그 중 특히 1824년부터 1832년 사이에 발간된(총5권) 메리 밋퍼드(Mary Mitford)의 소설 『우리 마을』(*Our Village*)이 유명하다. 이 소설은 쓰리 마일 크로스(Three Mile Cross)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인공이 영위하고 있던 자족적, 목가적 일상생활의 원형적 패턴이 당시에 급진적으로 진척되고 있던 물질적 근대화의 선형적 패턴과 연결이 되고 종내 파괴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1809년 버렐의 ‘지리학의 체계’는 어디에도 있는, 일상생활에 반쯤 잠겨 있는 문화와 조응한다—역사학자들이 망탈리테라고 흔히 부르는, 보통 물질적인 노동 활동과 뗄 수 없는, 들판의 위치나 지역의 작은 길, 거리에 대한 인식, 지평선 등등과 말이다. 그러나 농촌 공간에 대한 밋퍼드의 깔끔한 양식화(stylization)는, 노동을 위한 ‘원에 가까운 형태’에서 유희를 위한 원형 형태로 언급술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망탈리테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다.”²⁸⁾

위의 서술은, 왜 모레티가 지도 위에 문학작품을 놓고 독해하려 하였는지

27) Franco Moretti, *Atlas of the European Novel, 1800-1900*, London: Verso, 1999, p.5.

28) Moretti, *Graphs, Maps, Trees*, p.42.

를 드러낸다. 그에게 공간은 단순히 이야기의 배경이 아닌, 삶이 구조화되는 장소이다. 그 공간은 들판의 위치, 지역의 작은 길, 지평선 등등이 있는 물리적 공간이기도 하고, 노동과 재화의 생산 및 교환이 양식화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물리적 공간을 통해 지역 내외의 사람과 상품이 드나들고, 경제적 공간을 통해 특화된 서비스(시장, 교육, 문화행사 등등)가 거래되고 교환된다. 이를, 모레티는 발터 크리슈탈리의 중심지이론(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을 중심으로 전문성이 낮은 서비스의 층위가 6각형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시 위계)를 적용, 기하학적으로 이해하는 한편, 그 기하학적 층위구조가, 새로 생긴 방적공장과 “제조업에 의해 촉발된 사회생활의 극적인 재중심화”에 의해 변화하는 모습을 서술한다. 그것은 자족적이고 목가적인 삶의 원형(圓形)적 형태가, 노동의 지역적 분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위계와 새로운 근대문물(책, 신문 등등)의 유입경로에 맞춰 선형적으로 바뀌는 모습이다. 이와 같이, 소설 속 공간을 이해함에 있어 모레티는 지리학보다는 기하학적(원형, 선형과 같은) 설명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지리학이 구체적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현상적으로 이해한다면 다이어그램은 “형태에 작용하는 (...) 세력을 추론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²⁹⁾ 다시 말해, 그에게 있어 지도는, 특정한 사회적 주체들이 공간을 점유하고 삶을 방식을 양식화하며 다른 사회적 주체들과 만나 연계하고, 갈등하며, 타협하고, 세력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지도의 모형을 경유하여 모레티는 다시 장르론으로 돌아간다. 이 귀환에 더해지는 것은, 공간변화를 추진하는 시간의 형식, 즉 “공통의 기원에서 분기함으로써 변화하는” 나무의 형태다.³⁰⁾ 계량적 역사학이 200년간의 소설 장르를 전체를 구성하는 세부와 그 주기의 연속적 반복을 보여주었다면, 여기서는 하나의 마이너 장르-추리소설-에 초점을 맞춰, 어떠한 문학적 경쟁의 연쇄와 진화가 0.5퍼센트의 정전을 역사의 풍화 속에서 살아남게 했는지 99.5퍼센트의 비정전을 사라지게 만들었는지를 살펴본다.

문학적 생존이라는 화두를 탐구하며 영국 추리소설의 초기단계라는 사례를 든 이유는, 추리소설이 가진 양식적 특성 때문이다. 실마리의 제시와 해

29) *Ibid.*, p.57.

30) *Ibid.*, p.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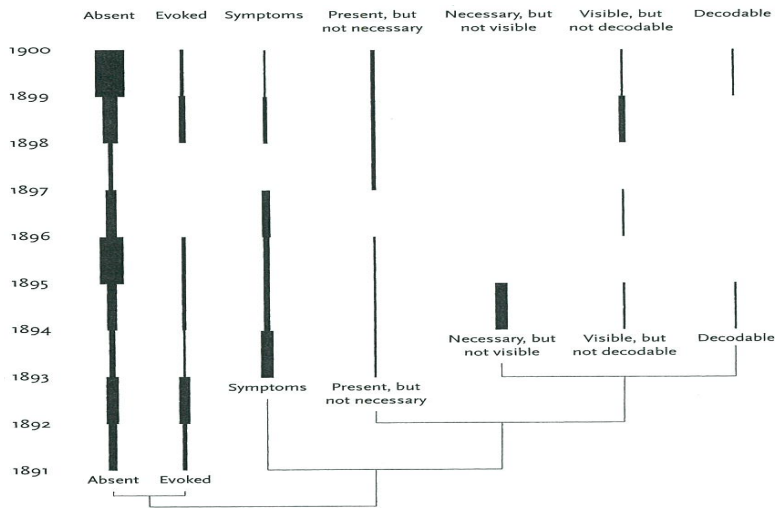
결은 추리소설의 전형적인 서사방식이자, 독자의 호불호를 확실하게 엿볼 수 있는 지표다. 각 소설이 어떠한 실마리를 어떻게 제시하였는가를 분석하고 각 단계마다 독자에게 선택받은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들을 연쇄적으로 파악하면, 실마리라는 공통의 기원 속에서 어떻게 추리소설이 분화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목표아래, 모레티는 실마리의 양식적 특징을 세분화하여, 실마리의 유무, 실마리의 필요성, 실마리의 가시성, 실마리의 해독성이라는 항목을 두었다. 이를 연속적인 분기 모양으로 도해하여, 각각의 항목에서 그러한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으로 나누었다. 가령, 코넬 도일의 『셜록 홈즈의 모험』은 실마리가 있었고, 필요했다. 그의 『빨간 머리 연맹』은 실마리가 보였고, 또 독자입장에서 해독 가능했다. 그러나 『태양과의 질주』(*Race with the Sun*)와 같은 추리소설에서는, 세 번째 잔의 커피 속에 단서에 해당하는 약이 들어있었음에도 주인공은 그것을 마셔버린다. 독자의 추리는 싱겁게 끝난다.

그러나 이 설명이 코넬 도일의 모든 소설이 다 완벽한 실마리의 제시와 해결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다른 추리소설 작가가 실마리를 푸는 형식적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오히려, 모레티는 “도보여행자를 열기구의 닳으로 죽이는 비행선 조종사나, 자신이 죽인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몽유병자 화가, 앉아 있던 사람을 인근공원으로 내동댕이치는” 미스터리물 작가 등은 유전학에서 말하는 마구잡이 시도(random drift)를 한 것으로 보았다.³¹⁾ 그것이 각 소설의 질적 차이를 만들었고, 독자의 선택에 의해 사라지거나 살아남게 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즉, 이러한 나무 모양의 계통도는 단순히 잊힌 작품을 복원하여 거시적으로 이해함에서 더 나아가, 실마리의 제시방식이라는 차이가 만들어낸 작품의 내적 분기와, 분기함으로써 변화하는 장르의 모습을 보여준다.

모레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1891년부터 1900년대에 출간된 영국의 추리소설을 전수조사하고 위에서 설명한 실마리 제시의 항목에 해당하는 작품의 수를 세어 [그림 3]을 만들었다. 그림의 가장 왼쪽은 실마리가 없었던 작품의 군집이다. 작품이 많을수록 굵게 표시되는데, 이 영역을 보면 얼마나 많은 작품들이 독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사라졌는지를 상상할

31) *Ibid.*, p.77.

수 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실마리가 있고 눈에 띄면서, 이야기 전개상 필요한 것이었고 해독할 수 있었던, 즉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있다. 예상대로 그러한 작품은 많지 않다. 또한 원편의 시간 축은 언제 그러한 작품들이 많이 출간되었는지 보여주는데, 1894년에서 1900년대 사이에서 세련된 작품이 거의 없었음을 본다면, 실마리 제시의 방식이 시간에 따라 자동적으로 진화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레티가 이 그림을 두고 “추리소설의 기원”이라고 명명한 점일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그림 전체는 염기서열에 기반을 둔 염색체지도와 닮았다. 즉 이 그림을 ‘기원’-창조를 향한 내적 기제가 발현한 최초의 시점-로 보면서 모레티는, 문학사에서 잊힌 99퍼센트의 비정전을 포함하는 문학사를 써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이 단지 문학사의 복원 차원이 아니라, 장르라는 생명의 탄생과 진화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웅변하고 있는 듯하다.



[그림 3] 실마리의 유무와 추리소설의 기원³²⁾

32) *Ibid.*, p.75.

세계문학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제시한 모레티의 그래프, 지도, 나무의 형태론적 해석은 도발적이다. 문학 장르는 각기 다른 성쇠의 역사적 궤적을 가진 개별장르의 총체라는 모레티의 장르론이나, 소설 내 공간을 사회적 세력의 충돌, 갈등, 타협 내지는 소멸로 본 작품해석이나, 하나의 작품 속에 이야기 구성의 분화와 변화의 내적 형식을 가진 문학장르의 진화론적 변천도, 그 견해가 비서구적이고 탈중심적이기 때문이다. 그의 형태론은 서사시와 궁정로맨스를 거쳐 리얼리즘에 도달한 장편소설의 역사성을 전제하지 않는 측면에서 비서구적이다. 또한 작품을 구성하는 형식적 특성이 소설이라는 상위 장르와 ‘소설적 하위’ 장르라는 대립적 구조, 서구라는 중심과 제3세계라는 주변을 상정하지 않고 각기 다른 수명을 가진 주기의 합이나, 추리소설의 기원 같은, 각각의 개별적 기원에서 발흥한 유기체적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탈중심적 혹은 다극적(multipolar)이다. 모레티가 제시한 그래프와 지도, 나무의 형태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근대소설의 역사성, 즉 소설이라는 것은 서구에서 시작해서 근대적 경험에 늦었던 나라들에게 전파된 것이라는 어쩌면 일반상식에 가까운 의견이 근대성이 만들어낸 문학적 신화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형태론적 장르론은 모레티가 “세계문학의 견해”에서 주장했던 자신의 세계문학론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당황스럽다. 프레드릭 제임슨은 가라타니 고진의 『일본 근대 문학의 기원』의 책 서문에서, 일본의 근대문학 형성에 있어 서구문학의 영향력을 밝힌 바 있다. “일본의 사회적 경험이라는 소재(raw material)와 서구의 소설 구성에서 온 추상적, 형식적 영향“ 사이의 불협화음과 타협 속에서 일본 문학이 발생되었다는 것이다.³³⁾ 모레티는 이 견해를 받아들여, 주변부의 세계문학은 “서구적 형식의 영향과 지역적 제재 사이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³⁴⁾ 이 위에 그는 주변부 문학에서 등장하는 서사적 목소리를 추가하는데, 그 이유는 “서구에서 온 플롯이, 지역의 등장인물들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 옷일 때, 해설이 수다스러워지고, 괴상해지며 통제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³⁵⁾ 3분법이 되

33) Karatani Kojin, *Origins of Modern Japanese Literature*, Durham: Duke UP, 1993, xiii; Moretti, “Conjectures on World Literature,” 58쪽에서 재인용.

34) Moretti, “Conjectures on World Literature,” p.58.

면서 분명 주변부 문학을 보는 관점이 좀 더 풍부해지고 복잡해진 측면이 있지만, 그 문학은 영미문학과는 다르게 서구의 양식적 특성을 빌어 지역적 소재와 타협시킨 성격을 가진다는 전제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서구와 제3세계라는 평면적이고 도식적인 구분에 도전을 받자, 모레티는 “추가 견해”(more conjectures)를 통해 재반박하며, 자신의 견해를 일부 수정하였다.³⁶⁾ 구체적으로, 그는 서구(중심)와 개별 지역(주변) 사이에 반주변부를 설정하였다. 반주변부는 “중심부에 가깝거나 중심 내에 존재하지만 경제적 영역에서는 헤게모니를 갖고 있지 않은 문화들”을 말한다.³⁷⁾ 문학의 혁신적인 실험은 중심이 아니라 반주변부에서 많이 일어났으며, 프랑스 문학의 발흥은 이 반주변부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문학의 척도를 나타내는 ‘그리니치 자오선’을 런던이 아닌 파리에 설정했던 카사노바의 세계문학론을 연상시킨다.³⁸⁾ 그러나 김용규는 이와 같은 모레티의 수정된 반주변부 문학론을 반대한다. 이 견해 역시 “의존의 정도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중성화하고 완곡하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³⁹⁾ 보다 근본적으로, 그는 모레티가 주변부 세계문학의 소설장르를 서구적 형식과 로컬의 제재의 ‘타협’이라고 본 것에 반대한다. 그 타협이라는 용어 속에 서구소설의 유럽 중심성과 특권적 지위와 제3세계의 입장에서 자의든 타의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 함축되어있다고 본다.⁴⁰⁾

필자 역시 김용규가 지적한 서구와 로컬의 문학적 권력관계의 문제, 형식과 제재 사이의 고정성의 문제가 모레티의 세계문학론에 내재되어 있다고

35) *Ibid.*, p.66.

36) “More Conjectures,” *New Left Review* 20, 2003, pp.73-81.

37) 김용규, 「세계문학과 로컬의 문화변역」, 『세계문학의 가장자리에서』, 현암사, 2014, 56쪽.

38) Pascal Casanova, *The World Republic of Letters*, Cambridge, MA: Harvard UP, 2007, pp.87-88.

39) 김용규, 앞의 책, 60쪽.

40) 김용규는 더 나아가 반주변부나 주변부의 기능을 “수동적, 종속적, 부차적 지위”로 낮추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중심부의 형식 역시 중심부에서 원래부터 존재했던 형식이라기보다는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일수도 있기 때문”이다(위의 책, 64쪽).

생각한다. 이러한 견해는, 그가 『그래프, 지도, 나무』에서 보여준 형태적 해석의 비서구적, 탈중심적 경향과 어긋나 더욱 모순된 것처럼 다가온다. 1750년대 사이에 폭발적 증가세를 보인 일본문학은 자체적 동력에 의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이 역시 서양의 형식과 일본의 제제사이의 타협의 결과였던 것일까? 영국, 일본, 스페인, 나이지리아 등이 개별적으로 발흥한 것처럼 보이는 그래프 안에서 중심과 주변부, 반주변부의 경계나 긴장관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메리 밋포드의 『우리 마을』에서 보여준 근대화의 과정 속에 제국과 식민의 세력의 갈등은 없었을까?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만들어진 것이 1600년, 인도에서 면화를 수입하고 중국에서 차를 수입하며 급성장한 시기가 17-18세기인데, 근대화에 의해 새로 들어온 물품과 이에 촉발된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 자족적이고 목가적 세계의 동심원을 파괴했다면, 이 소설의 공간을 형태적 구조로 이해함에 있어 제국/식민의 갈등은 정녕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 또한 소설 장르가 그 내부에 여러 시도를 통해 독자에게 선택받은 장치를 발전시키는 진화론적 문학 기제를 담지하고 있다면 그 기제는 서구의 소설이나 주변부의 소설 상관없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 만약 주변부 소설의 경우, 서구소설의 형식적 영향과 지역의 제제라는 이분법 위에서만 이 진화적 기제가 작동한다면, 앞서 보았던 추리소설의 기원과 같은 형태는 어떻게 변할까?

중심, 주변, 반주변이라는 삼분법 위에 모레티가 제기했던 세계문화 개념의 일반론과 『그래프, 지도, 나무』에서 그가 보여준 세계문화의 형태론적 해석의 각론 사이의 불협화음은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러나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가 세계문학을 물질주의적인(materialist) 입장에서 접근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⁴¹⁾ 그의 세계문학은 문학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에 관한 형식과 과정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른 학자가 연구한 이차자료의 성과를 일차자료처럼 읽어 대용량의 데이터로 집적하는 ‘멀리서 읽기’를 사용하는 그의 방법론은 특히 문제적이다. 다른 학자들이 어떠한 경로로 지식을 선별하고 범주화하였는지-아날학파의 식을 말하자면 ‘계열화’하였는지- 질문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동일한 문학적 사건을 두고 편집을 다르게 함에 따라 연계 되는 지식이 달

41) Hackler and Kirsten, *op. cit.*, p.5.

라질 수 있음을, 필자 자신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동일한 문학적 사건이란, 세계문학론의 기원이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괴테의 세계문학론 제안의 과정이다.

Ⅲ. 괴테, 세계문학, 정기간행물

“민족문학이라는 것은 오늘날 별다른 의미가 없고, 이제 세계문학의 시대가 있으므로, 모두들 이 시대를 촉진시키도록 노력해야해. 그러나 이처럼 외국문학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특수한 것에 매달려서 그것을 모범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 (...) 오히려 그 어떤 모범이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고대 그리스인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네. 그들의 작품에는 항상 아름다운 인간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단지 역사적으로만 검토를 하면서 그중 좋은 것을 가능한 한 받아들이면 되는 거네.”⁴²⁾

위의 인용은, 세계문학에 관한 가장 오래된 언급 중 하나로 최근연구에서 자주 회자되는 괴테의 세계문학관이다. 위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민족단위의 개별문학의 범주 안에서 읽고 쓰는 작업은 큰 의미가 없고, 여러 나라들의 문학을 받아들여 감상하고 비평하는 세계문학의 시대가 오리라는 것, 그러한 외국문학의 감상과 비평은 보통은 다른 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상황을 역사적으로 파악하여 하지만, 만약 아름다움의 가치판단을 위한 전범이 필요하다면 고대 그리스로 돌아갈 것. 왜냐하면 그곳에는 “항상” 아름다움이 있으니. 김용규는 괴테의 세계문학론에서 공간적 보편성은 유럽에, 시간적 보편성은 고대 그리스 문학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의 유럽적 시각을 탓할 수만은 없다고도 생각했다. 당시의 괴테에게 있어 세계는 유럽이었기 때문이다.⁴³⁾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테는 당시의 비서구 문학에 관해 높은 식견을 가지

42) 요한 페터 에케만, 『괴테와의 대화』 1, 장희창 역, 민음사, 2008, 324쪽. (이하 『괴테와의 대화』 1권은 『대화』 1로, 『괴테와의 대화』 2권은 『대화』 2로 약칭함.)

43) 김용규, 앞의 책, 45쪽.

고 있었다. 사실, 위의 인용 직전의 내용은, 1820년대 당시 괴테가 얼마나 중국문학작품에서 감동을 받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가 읽고 있던 한 중국 소설은 “이성적이고 시민적이어서” 자신이 쓴 『헤르만과 도로테아』나 영국의 리처드슨 소설과 닮았다고, 그렇게 좋은 작품이 에커만이 놀랄 정도로 “몇 천이나” 있으며, 또한 그 안에 “엄격한 중용의 정신이 있”어서 앞으로 중국 미풍양속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괴테는 보았다.⁴⁴⁾ 서양인들에게는 아직 낯선 중국의 문학 속에서 그는 어떤 보편적 세계시민의 정신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세계문학의 도래를 확신하게 된 것이다.

괴테의 세계문학론에 있어서 그의 문학론이 서구적인가 비서구적인가 하는 질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물음은⁴⁵⁾, 그가 세계문학이 도래함을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하는 것이다. 단지 중국문학의 우수성 때문 만이었을까? 다른 외국문학도 접하고 있었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였을까? 사실 에커만의 『괴테와의 대화』를 얼핏이라도 읽은 사람이라면, 여러 나라의 문학, 문화, 정치, 인물, 여행, 과학, 등에 관한 그의 인문학적 식견의 폭에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괴테는 중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의 여러 문학을 접하고 나름의 비평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영국의 월터 스콧(1771-1832)과 같은 작가와는 서신을 교환하며 서로의 문학관에 공명하였고, 당시의 역사와 나폴레옹과 같은 정치적 인물들,⁴⁶⁾ 또한 자연과학에도 깊은 식견이 있었다. 특히 『식물 변형론』을 쓸 정도로 식물학에 조예가 있었고,⁴⁷⁾ 광물학, 화석 수집⁴⁸⁾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해부학자들을 거론하며 칭찬을 하기도 하였다.⁴⁹⁾

44) 에커만, 『대화』 1, 321쪽.

45) 괴테의 세계문학론이 서구적인가 비서구적인가 하는 질문, 모레티의 세계문학론과 그의 멀리서 읽기가 제3세계 문학의 특수성을 포함하는 보편인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 비슷한 양상을 띤다고 지적한 심사자의 의견은 타당하다. 필자 역시 괴테와 모레티가 보인 서구와 비서구, 보편과 특수 사이의 관계가 모순인지 양가적 관계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역사성을 간과한 보편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며, 유럽의 사례와 다른 길을 걸었던 한국근대문학의 성립과정, 문학지식의 계열화 과정은 그러한 의미에서 세계문학의 개념화에 일조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46) 에커만, 『대화』 1, 479-481쪽.

47) 위의 책, 352쪽.

48) 위의 책, 336-338쪽.

현대의 세분화된 전문인의 눈으로는 가늠이 안 되는 전인적(全人的) 지식의 폭은 일단 차치하고, 괴테는 외국문학을 어떻게 접하고 중요한 작품을 선별해서 읽으며 자신의 비평적 감각을 세우고 있었을까? 이 질문은, 그가 세계문학을 주장하게 된 근거가 되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 자체가 모레티의 세계문학론에 관한 비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최소한 필자에게는 자기발견적(heuristic)인 의미가 있다.

“1828년 10월 17일 금요일

괴테는 얼마 전부터 『르 글로브』지를 아주 열심히 읽고는 이 잡지를 빈번하게 화제에 올렸다.”⁵⁰⁾

해외의 문학에 접함에 있어, 괴테는 월터 스콧의 서신교환과 같은 직접 접촉의 경로를 활용하였지만 그것은 드문 경우였고, 그보다 그는 외국에서 발행된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문학적 지식과 소식을 수집하였다. 해외 정기간행물에 관한 언급은 1827년과 1828년에 자주 등장하는데, 영국과 프랑스의 매체—예를 들어, 프랑스의 『르 글로브』(*Le Globe*),⁵¹⁾ 영국의 『외국 문예비평』(*Foreign Reviews*), 『에딘버러 문예비평』(*Edinburgh Reviews*)—이 주로 보인다. 이중 괴테는 『르 글로브』를 빈번하게 언급하였다.

그는 『르 글로브』의 편집인들이 그들만의 ”적합한 언어를 만들어” 독일과 프랑스의 “사상적 교류를 보다 쉽게” 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았다.⁵²⁾ 또한, 최근의 프랑스 작품에 대한 이 잡지의 수준 있는 논평 속에서, “낭만파의 자유로운 경향,” 즉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규범이라는 사슬로부터의 해방”을 읽어내고 즐거워하였다.⁵³⁾ 나아가, 에커만은 괴테가 이 수준 있는 프랑스 잡지의 논평을 읽으며 자신의 비평 감각을 조율하는 모습도 발견한다. 1827년 1월 4일 목요일의 에피소드가 그것인데, 괴테는, 당시에는

49) 위의 책, 338쪽.

50) 에커만, 『대화』 2, 352쪽.

51) 에커만, 『대화』 1, 352쪽.

52) 에커만, 『대화』 2, 257쪽.

53) 위의 책, 257쪽.

젊고 미숙했던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Victor Hugo, 1802-1885)의 시를 극찬한다. 위고는 처음에 고전주의의 고리타분한 경향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르 글로브』지를 자기편으로 두게 되면서 승리한 계임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다.⁵⁴⁾ 이탈리아 작가 만초니(Alessandro Manzoni, 1785-1873)와 위고를 비교하기도 하면서 위고의 수사학과 시적 재능의 뿌리에 관한 견해도 피력한다. 물론 괴테 스스로의 공부에 의해 쌓은 것이겠지만, 위고의 시에 관한 괴테의 긍정적 판단은 『르 글로브』의 것과 함께 함을 알 수 있다. 『대화』의 다른 곳에서는, 괴테가 만초니의 소설을 읽으면서 “『르 글로브지』 사람들이 이 소설에 대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 하는 장면도 보이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프랑스의 『르 글로브』지가 괴테의 내면에 비평의 준거틀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⁵⁵⁾

이 『르 글로브』지에 관해 괴테가 더 놀랐던 점은, 그 편집진이 매우 젊은 사실이었다. 그는 앙페르라는 젊은이를 알게 되어 바이마르에서 그를 만난다. 자신이 쓴 『파우스트』에 대한 그의 평을 들으며, 앙페르의 문학적 식견을 높이 평가한다. 그에게서 『르 글로브』지의 “동인들 전체가 모두 자기처럼 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듣고, 그렇게 젊은 프랑스인들이 “폭넓은 이해력과 깊은 통찰력”을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그것이 독일에서는 불가능함을 한탄한다.⁵⁶⁾ 왜냐하면, 독일의 젊은이들은 “서로 고립되어” 중부독일에서조차도 “얼마 안 되는 지식을 얻느라 고생깨나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⁷⁾ 서로 떨어져서 만나기도 어려운 독일 젊은이들이 『르 글로브지』의 편집진이 공통으로 가진 “보편적 교양”을 얻기가 어려울 것임을, 또한 그렇게 수준 높은 잡지가 독일에서 나오기는 어려울 것임을 예상하고, 괴테는 이를 탄식한다.⁵⁸⁾

괴테가 영국의 정기간행물을 읽는 장면도 에커만의 눈에 포착되었다. 1827년 7월 15일, “괴테는 내가 방에 들어왔을 때처럼 영국의 신문들을 계속해서 읽”고 있었다.⁵⁹⁾ 1828년 10월 10일 아침에 에커만은 영국의 프레이

54) 에커만, 『대화』 1, 276쪽.

55) 위의 책, 377쪽.

56) 에커만, 『대화』 2, 165쪽.

57) 위의 책, 166쪽.

58) 에커만, 『대화』 1, 404쪽.

저 씨로부터 배송된 『외국 문예 비평』지를 받아 정오에 전해주었다.⁶⁰⁾ 그 이튿날, 괴테는 그 『외국 문예비평』지 자신에 관해 기고한 칼라일의 글을 읽고 기뻐한다. “이전의 고루하기만 하던 스코틀랜드인들이 진지하고 철저한 자세로 바뀐 걸 보노라면 기쁨을 금할 수가 없어.”⁶¹⁾ 또한 같은 해 12월 16일, 괴테는 또 다른 영국(혹은 스코틀랜드)의 문예잡지, 『에든버러 문예비평』지의 최신판에 실린 독일 시인들의 평에 관해 언급하며 『외국 문예비평』지와 비슷한 즐거움을 보인다. “영국의 비평가들이 현재 도달한 높은 수준과 유능함”이 기쁘고, “고루한 흔적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으며 “위대한 개성이” 보인다는 것이다.⁶²⁾

위와 같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정기간행물을 통해 새로운 작품을 읽고 에커만 등, 독일의 문학가들과 토론을 하면서 얻은 괴테의 결론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는, 민족문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편적 교양이 확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앙페르와 같은, 젊은 프랑스인들이 수준 있는 문학을 만들고 유지하는 이유에 관한 괴테 나름의 생각이기도 하다. 그는 “재능을 가진 어떤 사람이 신속하면서도 신나게 발전하려면” “지성과 교양”을 단순히 엘리트나 귀족 몇 명이 향유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보통사람들의 차원에서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⁶³⁾ 둘째, 이 보편적 교양의 민족적 확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가 참조하던 영국과 프랑스 문학, 그 참조를 가능하게 했던 『외국 문예비평』, 『에든버러 문예비평』, 『르 글로브』와 같은 정기간행물의 유통이 중요하다고 본 듯하다. 괴테는 영국과 프랑스 문학이 이러한 수준 있는 정기간행물을 통해 타국의 사상과 문예이론의 수입, 논평을 정기적으로 함으로써, 개별 민족문학의 전반적인 수준이 올라간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그러한 매체가 없는 독일에서 문학과 문화의 융성방안은, 그러나 당시 앞서있는 프랑스나 영국의 과정을 밟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하나의 커다란 중심지와 비천한 열 개의 주변지역”이라는 형태로 발전했지만, 지방분권의 독일이

59) 위의 책, 371쪽.

60) 위의 책, 416쪽.

61) 위의 책, 417쪽.

62) 위의 책, 428쪽.

63) 에커만, 『대화』 2, 169쪽.

반드시 그 전철을 따라갈 필요는 없고, 오히려 문화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풍부한 자원을 가진 지방의 여러 독립도시들이 독자적인 주권을 유지하고, 그 지방적 특색을 강조하면서 전체를 유지할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⁶⁴⁾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럽의 각국이 일정 수준의 보편적 교양을 유지하면서 상호 교류, 비평한다면(칼라일이 실리의 생애를 서술하고 평가. 독일 작가 및 비평가들은 셰익스피어와 바이런에 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민족문학의 세계는 끝나고 세계문학이 도래한다는 것이다.⁶⁵⁾

이렇게 괴테의 세계문학관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의 중요성은, 그러나 한국의 번역본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았다.⁶⁶⁾ 크게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보면, 원본 자체의 출판방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한국어 번역본의 형식을 들 수 있다. 『괴테와의 대화』은 에커만이 괴테와 1823년부터 1832년까지 10년간 나눈 인문학, 과학 관련 토론을 일상어로 정리하여 묶어낸 책이다. 주제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묶어서 출간한 것이 아니라, 연도순, 날짜순으로 맥락이 다른 에세이를 정리하였다. 또한 각 연도의 에세이를 한 번에 인쇄한 것이 아니라, 같은 해의 내용을 몇 해에 걸쳐 정리하면서 정리된 것을 먼저 출판하였다. 따라서 같은 연도의 에세이가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어 맥락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원본의 편제를 한국어 번역본은 그대로 이어받아 출간하였다. 그러나 책 뒤에 색인어를 만들지 않아, 특정 주제어—예를 들면 『외국 문예비평』, 『에딘버러 문예비평』, 『르글로브』와 같은 매체이름—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렵다. 전체 천 백여 페이지가 넘는 번역본 두 권을 훑기 전에는, 세계문학과 매체와의 관계는 쉽사리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스펜간(J. E. Spingarn)이 1921년에 편집한 『괴테와의 대화』는 전체를 담지 않고, 문학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주제별로 장을 나누어 관련 내용

64) 위의 책, 273-274쪽.

65) 에커만, 『대화』 1, 324, 374쪽.

66) 물론, 백낙청은 괴테의 세계문학론에 있어 정기간행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이 당시 지식인들의 “초국적 운동”을 형성하는 매개가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백낙청, 「지구화시대의 민족과 문학」, 『통일시대 한국문학의 보람』, 창비, 2006, 77-78쪽). 그러나 그것을 『괴테와의 대화』에서 확인하기란 쉽지 않았다.

을 묶어 두었다.⁶⁷⁾ 이 책에서는 “Goethe’s Theory of a World Literature”라는 항목 밑에 괴테의 세계문학에 관한 에세이와 프랑스와 영국의 정기간행물에 관한 에세이가 곧장 등장한다.⁶⁸⁾ 게다가, 세계문학의 발흥에 있어 괴테가 명확하게 언급한 매체의 역할을 담고 있다. “이 잡지들[영국의 『에딘버러 리뷰』, 『외국 문예비평』, 『외국문학 분기평』]이 이전과는 비교할 없을 정도로 많은 독자를 거느리게 됨에 따라 우리가 희망하는 보편적 세계문학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독자는 이렇게 확실히 명시된 언술에서 세계문학의 확산을 위한 외국매체의 역할에 대한 괴테의 기대를 놓칠 수가 없다.

위와 같은 다른 번역본의 편제와 물질적 형식은 모레티의 ‘멀리서 읽기’를 통해 세계문학을 이해하려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의 교훈을 시사한다. 한마디로, 지식의 축적과정 자체가 지식의 계열을 묶는 형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모레티는 역사 속에서 살아남은 정전(일차자료)을 읽는 것과 동시에, 다른 연구자들의 성과(이차자료)를 모으고 일차자료처럼 분석하여 그 전체를 대상으로 형태적 해석을 시도한다. 자신이 “의도된 추상”이라고 부른, 문학적 지식을 축적하고 계열화하는 과정에서 그는 문학의 물질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멀리서 읽기’의 바탕이 된, 이차자료가 어떤 과정을 거쳐 계열화되어 자신의 그래프를 구성하는 새로운 지식이 되었는지 크게 의문을 갖지 않는 듯하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그림이었던 그래프의 경우 영국의 소설은 일본의 모노가타리와 같은 것인가 하고 묻게 된다. 만약 한국의 사설이 그 그래프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한국의 소설은 『춘향전』과 같은 고소설, 이인직의 신소설, 이광수의 『무정』과 같은 근대소설을 모두 같은 장르로 보고 넣을 것인가? 만약 그러하다면 『대한매일신보』나 『독립신문』에 유행했던 서사의 형식을 갖춘 논설들(“서사적 논설”, “논설적 서사”⁶⁹⁾ 혹은 “단편 서사물”⁷⁰⁾은 어떠한 것인가? 한자로 된 단편양식도 넣을 것인가? 아니면 국문이나 국한문 혼용만? 여기에 『춘향전』과 같

67) J. E. Spingarn, ed., *Goethe's Literary Essays*, New York: Frederick Ungar Publishing Co., 1964.

68) *Ibid.*, pp.89-93.

69) 김영민, 『한국 근대소설사』, 솔, 1997.

70) 한기형, 『한국 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출판, 1999.

은 고전소설을 활판으로 인쇄한 신작구소설은 고전소설과 다른 새로운 소설로 볼 것인가? 외국 소설을 들여와 번안한 작품들은 새로운 창작물로 보고 그래프에 넣어야 할까? 이차자료에서 얻은 지식의 축적과 계열화하는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모레티의 그래프는 성글다. 마치 괴테의 세계문학론을 논하면서 매체의 중요성을 빼놓고 언급하는 것처럼 허전하다.

지식의 축적을 계열화하는 물질적 형식은 바로 한국에서는 “매체론” 혹은 미국에서는 “정기간행물 연구”(periodical studies)라는 학제가 바라보는 지점이기도 하다. 2006년 선 라썸(Sean Latham)과 로버트 스콜스(Robert Scholes)는 *PMLA*에 「정기간행물 연구의 발흥」(The Rise of Periodical Studies)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⁷¹⁾ 이들이 신문과 잡지 매체를 문학 연구의 대상, 특히 출판문화 영역의 한 부분으로 보자고 제안한 계기가 흥미로운데, 바로 디지털 아카이브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⁷²⁾ 다시 말해, 디지털 아카이브의 확산이 한편으로는 정기간행물 연구라는 트렌드를 만들고, 한 편으로는 모레티가 ‘멀리서 읽기’를 통해 세계문학에 접근하도록 만든 배경이 된 듯하다.

미국에서는 잡지와 문학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문학사 전체 중 일부에서만 다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리틀 매거진”(little magazine)이라는 전통이 그것인데 주류에서 소외된 비상업적 문학그룹의 사상과 작품을 발굴하여 소개한 잡지들의 무리로, 1920년대의 모더니즘이나 할렘 르네상스가 이러한 잡지 전통을 통해 형성되었다.⁷³⁾ 이러한 잡지들, 또한 이전 세대의 정기간행물들의 디지털 아카이브가 만들어지면서 학자들은 잡지가 작품과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텍스트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라썸과 스콜스는, 사람들이 잡지를 “상이한 정보를 담은 용기” 정도로 취급하거나, 그 정보를 작가론이나 작품론을 위한 역사적 증거로 삼는 연구관행을 반대하면서 잡지를 그 자체로 읽을 것을 제안한다.⁷⁴⁾ 여기서 그 자체로 읽는다는 것은 한 권의 잡지를 시,

71) Sean Latham and Robert Scholes, “The Rise of Periodical Studies,” *PMLA* 121.2, 2006, pp.517-531.

72) *Ibid.*, p.517.

73) Suzane W. Churchill and Adam Mckible, eds., *Little Magazines and Modernism: New Approaches*, London: Ashgate, 2007, pp.6-7.

74) Latham and Scholes, *op. cit.*, p.518.

소설, 비평, 문예사조 등 어떤 선집(anthology)을 구성하는 것처럼 따로 떼어서 읽는 것이 아니고, 잡지 한 권에 실린, 작품, 수필, 비평, 편집여언, 광고 등등의 전체를 당시의 문학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의 입장에서 통으로 읽는 것을 말한다.⁷⁵⁾ 독자론의 입장에서 이 통으로 읽기를 시도한 좋은 사례가 앞서 언급한 괴테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와 영국의 잡지를 정기적으로 구독하여 읽으며 새로운 작품과 문학 지식들을 습득하고, 문예의 국제적인 지평에서 비평의 날을 세워 자신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학적 지식과 작품의 생산 및 소비를 연결하는 물질 형식과 토대로서의 매체를 간과한 세계문학론은 공허하지 않을까?

영미문학과 비교하면 한국 근대문학에서 갖는 매체의 비중은 매우 크다. 그 한 가지 이유는, 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3국의 근대문학이, 나츠메 소세키가 주장한 바와 같이 “내발적이기 보다는 외발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⁷⁶⁾ 근대문학 형성의 필요성이 나라 밖에서 촉발되어 안으로 삼관되었다는 것은 근대문학을 미적으로 향유하기 전에, 먼저 번역하고 이해해야 할 지식의 대상으로 인식하였음을 뜻한다. “피상적인 수박 겉핥기의 개화”라고 눈물을 머금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나츠메 소세키의 견해는 이 인식에 수반되는 고통과 어려움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문과 잡지와 같은 매체는 외발적 근대문학의 번역과 변용을 견인한 중요한 물질 기제였다. 근대문학과 맺은 매체의 여러 성격은 이미 여러 국문학자들에게 의해 논증된 바 있는데, 백철은 1920년대 잡지를 서구문예수입과 문예운동의 통로로 보았고,⁷⁷⁾ 김영민은 개화기 신문을 통해 서구의 장편과 다른 단편 장르가 형성되었다고 보았다.⁷⁸⁾ 또한 한기형은 신문이나 잡지의 구성물로서의 문학은, 잡지에 게재된 정치, 종교, 사회이념과 보다 쉽게 연동하면서 “문학의 사상화”를 견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⁷⁹⁾ 이 밖에 출판시

75) 로버트 스콜스는 그가 제안한 ‘정기간행물’ 연구를 영문학에 적용하여 잡지를 통해 모더니즘의 발흥을 추적하였다 (Robert Scholes and Clifford Wulfman, *Modernism in the Magazines: An Introduction*, New Haven: Yale UP, 2000).

76) 나츠메 소세키, 「현대 일본의 개화」(1911). 야나부 아키라, 『한 단어 사전, 문화』, 푸른역사, 2013, 81쪽에서 재인용.

77) 백 철, 『신문학사조사』, 개정증보판, 신구문화사, 1980.

78)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숲, 1997.

장의 분화,⁸⁰⁾ 작가 등단 제도⁸¹⁾ 등, 근대문학의 형성을 둘러싼 여러 현상들은 문학 저널리즘의 등장과 성장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한국근대문학에 있어서 매체가 중요한 다른 이유는, 매체가 식민지의 문학생산을 제도화하고 구조화한 형식이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괴테가 겪은 매체와 식민지 작가들이 경험한 매체의 성격은 크게 달라진다. 특히 식민지 시기 내내 작동되었던 제국의 검열은 문학생산을 둘러싼 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매개한 제도였다. 식민지에서 간행된 모든 출판물을 사전 검열하기 위해 일제는 신문지법(1907), 출판법(1909) 등 언론출판관계 법제 뿐만 아니라 불온기사와 서적을 처벌하기 위한 보안법(1907), 치안유지법(1928) 등 사상관계법제도 확충하였다. 1926년 5월, 고등경찰과로부터 이후 도서과가 분리된 이후, 검열은 좀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였는데, 1928년부터 38년까지 발간된 기밀기록 『조선 출판경찰 월보』를 보면, 얼마나 일제가 식민지에서 생산된 모든 지식의 유통에 세세하게 개입하였는지 그리고 꼼꼼하게 기록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다.⁸²⁾ 검열은 새로운 문학작품의 출간을 얼마나 위축시켰을까? 검열은 작가의 재생산제도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을까? 검열은 국내출간 서적이거나 잡지를 통제하였지만 해외에서 유입된 독서물도 통제하였는데(식민지기 한국의 경우, 유입서적이 국내 출간서적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⁸³⁾ 이 통제의 방향이나 경향이 국내의 서적출판과

79) 한기형, 「개벽의 종교적 이상주의와 근대문학의 사상화」, 『상허학보』 20, 2007.

80)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독자의 탄생과 한국근대문학』, 푸른역사, 2003.

81) 박헌호 외, 『작가의 탄생과 근대문학의 재생산제도』, 소명출판, 2008.

82) 박헌호·손성준, 「한국근대문학 검열 연구의 통계적 접근을 위한 시론: 『조선출판경찰월보』와 식민지 조선의 구텐베르크 은하계」, 『외국문학연구』 38, 2010. 이상경, 「『조선출판경찰월보』에 나타난 문학작품 검열양상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17, 2008. 『월보』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검열이 매개한 문학주체들(작가, 검열관), 검열이 제도화한 텍스트 생산방식(검열의 여러 단계와 작가들의 검열회 피 노력, 그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판본의 텍스트), 그리고 이 주체들과 제도와 텍스트를 하나의 현상으로 체현한 물질적 장으로서의 매체에 관한 상세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검열연구회, 『식민지검열, 제도 텍스트 실천』, 소명출판, 2011; 한만수, 『허용된 불온-식민지 시기 검열과 한국문학』, 소명출판, 2015; 한기형 외, 『검열의 제국-문화의 통제와 재생산』, 푸른역사, 2016). 식민지 한국 문학 관련한 외국의 검열연구 성과는, Kyeong-Hee Choi, "Impaired Body and Colonial Trope: Kang Kyōngae's 'Underground Village,'" *Public Culture* 13.3, 2001.

분화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검열관은 법에 저촉되면 해당 작품을 쓴 작가가 아니라, 그 작품의 출판인이나 신문이나 잡지의 발행인을 처벌하였다. 이것은 식민지기 잡지의 수명이 짧은 하나의 이유이기도 한데, 만약 검열과 같은 사상 통제가 한국에서 등장한 문학 장르의 주기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파악하려 한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매체의 수명과 장르의 수명을 같이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문학 지식의 새로운 계열화라는 측면과 아울러 신문과 잡지는, 출판시장을 분화하고 문학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제도적 형식으로 기능한다. 앞서 모레티는 장르를 30년 성쇠의 주기로 설명하고, 그것을 하나의 장르를 음미하는 독자 세대의 생몰로 설명하였다. 이 설명은 추론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독자가 하나의 장르를 출판시장에서 소비하는 형식과 과정에 관한 설명이 거의 없이 독자의 기호와 장르의 수명을 이어 붙였기 때문이다. 1760년부터 1820년 사이에 영국에서 서간체 소설, 고딕 소설, 역사소설, 어떠한 형식으로 출판되고 소비되었을까? 모든 독자들이 단행본 소설을 사는 방식으로 소설을 소비하였을까? 신문이나 잡지를 사서 그 안에 있는 소설을 읽지는 않았을까? 이 소설읽기의 물리적 방식이 좀 더 극명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1910년대 20년대의 한국에서다. 천정환이 논구한 바와 같이 당시의 출판시장은 『춘향전』, 『심청전』과 같은 고소설, 이인직, 이해조의 신소설을 판매하던 단행본 시장과 『무정』, 『표본실의 청개구리』, 『만세전』과 같은 서구적 문예소설을 신는 정기간행물 시장으로 양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⁸⁴⁾ 특이한 점은, 구소설 독자들이 식민지시기를 통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구 문예이론이 발빠르게 들어와서 낭만주의, 자연주의, 사실주의 소설 등이 빠르게 거쳐 지나갈 때에도 구소설 독자들은 우직하게 남아 활판인쇄로 새롭게 편집된 구소설(인쇄본 구소설)을 읽고 또 읽었다.⁸⁵⁾

83) 한기형에 따르면, 1926년과 1939년 사이 조선어 출판물은 959,106건 늘어났지만, 수입출판물은 2,220,493건이 증가했다고 한다(한기형, 「이중출판시장」과 식민지 검열-토착성이라는 문제의식의 제기, 『민족문화사 연구』 57, 2015, 136쪽).

84) 천정환, 앞의 책, 64-76쪽.

85) 한기형의 통계에 따르면 활판 인쇄로 출간된 구소설(인쇄본 구소설)은 구소설 출간의 40퍼센트에 달한다고 한다(한기형, 「차등 근대화와 식민지 문화구조」, 49쪽). 그는, 이러한 구소설과 옥편, 족보 등의 '구시대적' 출판물을 전통문화의 잔

모레티 식으로 말하자면,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확산된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소설은 주기가 짧았고, 단행본으로 출간된 구소설은 그보다 주기가 길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식민지 시기 출판시장을 분화한 신문, 잡지 매체의 성격이나 기능을 전제하지 않고는 길이가 다른 장르주기에 관한 설명이 힘들어 보인다.

IV. 나가며

앞서 우리는, 디지털 아카이브가 이용가능하게 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세계문학 연구방법을 모레티의 형식론적 해석의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는 몇 백 년간의 시간과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역사적 지평을 넓혔던 아날학파의 계열사를 문학적으로 적용하여, 전 지구적으로 확장된 시공간 속에서 문학사에서 잊힌 작품들을 다시 소환하였다. “멀리서 읽기”라고 부른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새롭게 축적한 문학정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새롭게 계열을 만들어 그 의미를 시각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세계문학은 새롭게 구성되었다. 즉 그가 본 세계문학은, 각국의 여러 연구자들이 국가단위로 제공한 문학적 지식을 나름의 방식으로 축적하고 새롭게 계열화하여 만들어낸 가변적 대상으로서의 세계문학이다. 좁게 한 나라의 특정 장르를 세계문학 연구의 대상으로 둘 수도 있지만(예를 들어 영국의 추리소설), 그렇게 좁은 대상 안에서도 독자에게 그것이 단순히 민족문학의 사례로 읽히지 않는 이유는, 그와 유사한 방법을 쓴다면 다른 나라를 비교할 수 있는 계열화의 범주를 이미 방법론 안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가 제시한 그래프, 지도, 나무라는 형태론적 모형은 문학작품의 아카이브를 거시적으로 구성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해석적 포

재로 보고 근대문학사에서 배제해왔던 관행을 비판하고, 그러한 출판물들을, 균질화를 지향하는 근대에 대한 “진화론적 동화를 스스로 포기하는 적극적인 반근대화”의 징표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한기형, 「‘이중출판시장’과 식민지 검열」, 121쪽).

한 문학사적 의미를 부여하도록 기능하는 물질 형식이다. 모레티가 자신을 “물질주의자”라고 불렀을 때 그 의미는 이렇게 텍스트를 넘어서는 지식의 집적을 문학 연구의 대상으로 놓고, 그것을 통계적 분석으로 도해(圖解)한 다는 뜻이었다고 생각한다. 그가 제시한 연구방법상의 물질주의적 접근을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는 이유는, 연구 대상으로서의 과거 문학이 당대에 축적하고 계열화한 지식의 물질 형식을 간과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문학지식의 유통이 새로운 문학작품과 비평을 만들고, 중국에 민족적 차원에서 보편적 교양을 고양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한다고 본 괴테의 입장을 고려하면, 이 문학지식을 유통시키는 물질적 형식으로서 매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모자람이 없다. 특히, 모레티는 연구대상으로서의 세계문학의 경계를 다른 학자의 이차자료에 기대어 가변적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자들이 어떻게 각 나라의 문학을 살펴보고 계열화하고 있는지를 좀 더 섬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국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모레티의 ‘멀리서 읽기’를 한국이나 동아시아 문학에 적용할 때 어떠한 모습이 될까하고 생각해 본다. 생각해 보아도, 한국 문학의 사례가 『그래프, 지도, 나무』가 제시한 여러 그림들 중 하나에 들어가는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소설의 발흥”이라는 그래프를 설명하면서 한국문학을 대상으로 잡았다면, 아마 새로운 소설의 출판 형식을 단행본과 더불어 매체 기고도 넣었을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같은 제목의 다른 형태의 판본(예를 들면 『춘향전』의 딱지본, 인쇄본 등등)을 신작소설로 봐야할까 고민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되면 구소설, 신소설, 근대소설을 모두 하나의 소설로 보고 통계를 잡을 것인가 생각하다가,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신작소설의 통계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 물을 것 같고, 그러다가 포기할지도 모르겠다. 모레티가 비서구를 포함하는 세계문학론에 천착하고 있음에도, 그의 방법론에서 식민의 문학 경험에 대한 모색과 탐색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음은 유감이다. 이 식민의 경험, 특히 신문과 잡지를 통한 문학지식과 작품의 생산 및 유통에 개입하여 제국의 검열자와 식민지의 작가가 벌인 쟁투를, 향후 ‘멀리서 읽기’를 통해 세계문학의 입장에서 분석할 수 있다면, 한국문학이 모레티를 경유하여 세계문학론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되지 않을까 싶다.

■ 참고문헌

- 검열연구회, 『식민지검열, 제도 텍스트 실천』, 소명출판, 2011.
-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솔, 1997.
- 김용규, 「세계문학과 로컬의 문화번역」, 『세계문학의 가장자리에서』, 현암사, 2014.
- 김응중, 『아날학파의 역사세계』, 아르케, 2001.
- 박헌호 외, 『작가의 탄생과 근대문학의 재생산제도』, 소명출판, 2008.
- 박헌호 · 손성준, 「한국근대문학 검열연구의 통계적 접근을 위한 시론: 『조선출판경찰월보』와 식민지 조선의 구텐베르크 은하계」, 『외국문학연구』 38호, 2010.
- 백낙청, 「지구화시대의 민족과 문학」, 『통일시대 한국문학의 보람』, 창비, 2006.
- 백 철, 『신문학사조사』, 개정증보판, 신구문화사, 1980.
- 야나부 아키라, 『한 단어 사전, 문화』, 푸른역사, 2013.
- 요한 페터 에커만, 『괴테와의 대화』 1, 장희창 역, 민음사, 2008.
- _____, 『괴테와의 대화』 2, 장희창 역, 민음사, 2008.
- 이상경, 「『조선출판경찰월보』에 나타난 문학작품 검열양상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17호, 2008.
- 천정환, 『근대의 책임기: 독자의 탄생과 한국근대문학』, 푸른역사, 2003.
- 프랑수아 도스, 『조각난 역사』, 김복래 역, 푸른역사, 2002.
- 한기형, 『한국 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출판, 1999.
- _____, 「개벽의 종교적 이상주의와 근대문학의 사상화」, 『상허학보』 20, 2007.
- _____, 「‘이중출판시장’과 식민지 검열-토착성이라는 문제의식의 제기」, 『민족문학사 연구』 57집, 2015.
- _____, 「차등 근대화와 식민지 문화구조-인쇄본 구조설과 ‘하위대중’의 상상체계」, 『민족문학사 연구』 62집, 2016.
- 한기형 외, 『검열의 제국-문화의 통제와 재생산』, 푸른역사, 2016.
- 한만수, 『허용된 불온-식민지 시기 검열과 한국문학』, 소명출판, 2015.

- Abrams, M. H.,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7th Edition, New York: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1999.
- Casanova, Pascal, *The World Republic of Letters*, Cambridge, MA: Harvard UP, 2007.
- Choi, Kyeong-Hee, "Impaired Body and Colonial Trope: Kang Kyöngae's 'Underground Village,'" *Public Culture* 13.3, 2001.
- Churchill, Suzane W. and Mckible, Adam, eds., *Little Magazines and Modernism: New Approaches*, London: Ashgate, 2007.
- Erlin, Matt and Tatlock, Lynne, eds., *Distant Readings: Topologies of German Culture in the Long Nineteenth Century*, New York: Camden House, 2014.
- Foucault, Michel, *The Archeology of Knowledge & The Discourse on Language*, New York: Harper Colophon Books, 1976.
- Hackler, Ruben Marc and Kirsten, Guido, "Distant Reading, Computational Criticism, and Social Critique: an Interview with Franco Moretti," 2016. <http://www.fsw.uzh.ch/foucaultblog/featured/144/distant-reading-interview-with-franco-moretti> (검색일: 2017.06.13.).
- Karatani, Kojin, *Origins of Modern Japanese Literature*, Durham: Duke UP, 1993.
- Latham, Sean and Scholes, Robert, "The Rise of Periodical Studies," *PMLA* 121.2, 2006.
- Long, Hoyt and So, Richard, "Network Analysis and the Sociology of Modernism," *Boundary 2: An International Journal of Literature and Culture*, 40.2, 2013.
- McGann, Jerome, *The Textual Condition*, Princeton: Princeton UP, 1991.
- McKenzie, D. F., *Bibliography and the Sociology of Texts*, Cambridge, UK: Cambridge UP, 1999.
- Moretti, Franco, *Atlas of the European Novel, 1800-1900*, London: Verso, 1999.
- _____, "Conjectures on World Literature," *New Left Review* 1, 2000.

- _____, *Distant Reading*, London: Verso, 2013.
- _____, *Graphs, Maps, Trees*, London: Verso, 2005.
- _____, *Il romanzo di formazione*, Milan: Garzanti, 1986. Translated by Albert Sbragia as *The Way of the World: The Bildungsroman in European Culture*, London: Verso, 1987.
- _____, "More Conjectures," *New Left Review* 20, 2003.
- _____, *The Bourgeois: Between History and Literature*, London: Verso, 2013.
- Scholes, Robert and Wulfman, Clifford, *Modernism in the Magazines: An Introduction*, New Haven: Yale UP, 2000.
- Spingarn, J. E., ed., *Goethe's Literary Essays*, New York: Frederick Ungar Publishing Co., 1964.

❖ ABSTRACT

On Franco Moretti's World Literature: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Periodical Studies

Lee, Jae-Yon

The works of a literary and cultural historian Franco Moretti are conspicuous in many ways. Trained in Marxism and Russian formalism, he participat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New Left in England. Also, he interestingly interpreted the socialization of the individual through the genre of *bildungsroman*. Then, he shifted his research interest to the notion of world literature, and to explore its global scale, he developed his own quantitative approach combined with advanced computer technology in digital humanities. His recent publication reveals that Moretti conducted a social critique of the European bourgeois culture with his new quantitative method. His macroscopic view of literature and use of cutting-edge technology in his research inspire historians of Korean literature located in the so-called periphery of world literatur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dea of world literature outlined by Franco Moretti by reviewing his method called “distant reading” and examples of such an approach. His distant reading is to construct a macroscopic archive through inclusion of forgotten works from literary history and to analyze morphological patterns that frequently appear in the archive. His book entitled *Graphs, Maps, Trees* is a collection of examples of which he applied distant reading. By delving into such cases, I will raise questions about Moretti's macroscopic perspective of world literature in conjunction with Korean literature. As located at the periphery of global circulation of literary knowledge, Korea appropriated Western genres, established its literary institutions, and developed book markets through modern newspapers and magazines. This experience of furthering modern

literature through periodicals would provide another view to revisit Moretti's world literature.

Key Words : Franco Moretti, world literature, distant reading, Korean literature, periodical studies

■ 논문접수일 : 2017. 8. 10

■ 심사완료일 : 2017. 8. 31

■ 게재확정일 : 2017. 9. 1

